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미국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와 고용 악화 우려
 - 9월 산업활동동향 일시적 부진
- 경영 노트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WRAP 프로세스
- 사회 트렌드
 - 결혼하는 6쌍중 1쌍 연상녀-연하남 커플
 - 죽음의 질
- 저널 브리프
 - 캠퍼스 리쿠르팅 활용 전략
- 洗心錄
 - 단풍이 주는 교훈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일부 경제지표 회복세와 고용 악화 우려

- 최근 미국의 주택 경기 및 소비자신뢰지수 등의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악화 우려에 경기회복의 기대감 축소
 - 주택 경기 : 미국의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P 케이스-윌러 지수는 지난 8월 전년동월대비 12.8% 상승. 이는 시장 예측치 12.5%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 소비자 신뢰 : 닐슨 글로벌 소비자신뢰지수는 3분기에 94p로 전년 동기 대비 2p 상승하였고, 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
 - 고용 악화 우려 : ADP 민간고용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의 동향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10월에 13만 명 증가한 데 그침. 이는 시장전망치 15만 명 및 전월 14.5만 명 증가에 밀도는 수준으로 6개월래 가장 부진

- 최근 미국의 주요 실물지표들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용 부문에서 양적완화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8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양적완화 축소 시행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짐

□ 9월 산업활동동향 일시적 부진

-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파업, 추석연휴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광공업생산, 소비, 설비 및 건설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
 - 생산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줄었고 추석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2.1% 감소,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4.5%), 금융보험업(2.3%) 등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
 - 소비 : 소매판매는 내구재(-3.6%), 준내구재(-2.4%) 및 비내구재(-1.1%)의 소비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0% 감소
 - 투자 :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4.1% 감소, 반면 건설투자 중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가 모두 호조를 보여 전월대비 2.2% 감소

- 9월 산업활동동향은 부진하였지만,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는 산업활동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WRAP 프로세스¹⁾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할까 말까’ 식의 잘못된 의사결정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음
 - 폴 너트 박사에 따르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할까 말까’ 식의 의사결정은 실패율이 52%에 이룸
 - 사람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자동적으로 눈앞의 정보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선택을 하기 때문
- 댄 히스와 칩 히스는 WRAP의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의 실수를 방지하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 WRAP 모델의 핵심은 자동적으로 쉽게 얻어지는 정보와 직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감과 반대되는 정보를 비롯해 의식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WRAP 프로세스 >

	내 용
1단계(W): 선택에 직면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안을 늘려라(Wide Your Options) • ‘할까 말까’가 고민되면 ‘다른 대안이 없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대안을 동시에 취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방식을 채택 • 다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2~3개의 대안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
2단계(R): 선택안을 분석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인 의사결정 전에 검증의 과정을 거쳐라(Reality-Test Your Assumptions) •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몇 가지 작은 실험으로 아이디어나 대안을 검증하는 절차가 도움이 됨
3단계(A): 선택을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라(Attain Distance Before Deciding) • 예를 들어 익숙한 것들에 대해 느끼는 호감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단기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등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찰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
4단계(P): 선택의 결과를 전망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이 틀렸을 때에 대비하라(Prepare to Be Wrong) • 인계철선(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을 설치하여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 요구 • 예컨대 보스가 승인한 이메일 마케팅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할 때, 당신은 보스에게 이메일 응답률이 0.5% 미만이라면 마케팅 아이디어를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할 수 있음

1) ‘조직행동론의 ‘구루’ 히스 형제, 의사결정 원칙을 말하다’(매일경제신문, 2013.10.25)를 요약 정리함.

□ 결혼하는 6쌍중 1쌍 연상녀-연하남 커플²⁾

-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결혼하는 부부 6쌍 중 1쌍은 연상녀-연하남 커플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연상녀-연하남 부부의 비중은 2002년 11.6%에서 지난해 15.6%로 4%포인트 늘어남(연상남-연하녀 비중은 74.1%에서 68.2%로 하락)
 -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많아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화면서 나타난 현상
- 2000~12년 중 월별 평균 혼인 건수는 10월이 3만 8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3만 7848건으로 뒤를 이었음. '결혼의 달'이라는 5월은 3만 4643건으로 3위
 - 가을 결혼이 많은 것은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결혼하려는 심리와 날씨가 좋은 계절에 식을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초혼 연령을 보면 1990년 남자가 27.8세, 여자가 24.8세에 첫 결혼을 했지만 2012년에는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높아졌음
 - 이혼의 경우 지난 13년간 166만 7145건이 이뤄졌고, 월평균 1만 687건이었음. 월별로는 3월이 1만 1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9792건으로 가장 적었음

□ 죽음의 질³⁾

-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 조사에서 영국이 1위, 한국이 32등 차지
 -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2~5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23위, 한국이 32위를 차지함
 - 좋은 죽음이란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친구들과 함께 △고통없이 죽어가는 것
- 영국이 '죽음의 질'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료 인프라(practice), 정책(policy), 사회인식(public) 삼박자 위에 얻어진 것
 -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호스피스'임
 - 영국은 인구 6300만 명에 호스피스 병상이 3175개인 반면, 한국은 인구가 5000만 명인데, 호스피스 병상은 880개임

2) '결혼하는 6쌍중 1쌍 연상녀-연하남 커플'(헤럴드경제, 2013.10.29)를 요약 정리함

3) '영국, 마지막 10년 삶의 질 세계 1위'(조선일보, 2013.11.4)를 요약 정리함

□ 캠퍼스 리쿠르팅 활용 전략⁴⁾

○ 기업들의 인재 확보 수단 중 하나인 캠퍼스 리쿠르팅의 활용 전략을 소개

- 캠퍼스 리쿠르팅은 우수 인재 선점과 더불어 기업 홍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음
- 그러나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은 2~3학년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캠퍼스 리쿠르팅을 일반 채용과정과 비슷하게 접근하는 기업들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① 평소에도 꾸준히 캠퍼스에 눈도장을 찍어라

- 대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이라면 우선 캠퍼스에 정기적·지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음
-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취업을 원하는 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지도 높은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美 온라인 유통컨설팅업체 스트림라인 인터내셔널(STREAMLINE INTERNATIONAL)은 강사 파견, 실습 기회 제공 등 대학 교과과정에 후원자로 참여하여 동종업계 대비 높은 지원율을 자랑

②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자세로 접근하라

- 기업들은 캠퍼스 리쿠르팅을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자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주는 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리쿠르팅은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주요 접점과 같아서 성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사회경험 없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
- 미국 IT 업체 EDS(Electronic Data Systems)는 50여개 대학에서 이력서 작성 교실과 취업 특강을 운영하며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

③ 중위권 대학의 상위 1% 인재를 공략하라

- 기업들은 명문대에 집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위권 대학을 공략하여 상위 1%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수도 있음
- 캠퍼스 리쿠르팅은 대부분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미국 군수품 생산업체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은 지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의 적극 활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IT 인재를 확보

4) '취업설명회만 하면 파리 날리는 기업, 핫이슈 기업이 되려면? 꾸준히 캠퍼스에 눈도장 찍어라'(조선비즈, 2013.08.29)참조

□ 단풍이 주는 교훈

가을 단풍이 절정을 지나고 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면 높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눈을 돌려 주위를 바라보면 어느새 산과 들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삭막한 도심의 거리도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담쟁이 등이 노랗고 빨간 손바닥을 흔들어 출퇴근길의 여유 없는 마음을 위로해 준다.

이처럼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가오는 겨울을 바쁘게 준비하는 나무의 처절함이 배어 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버텨내기 위해 가지에서 잎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떨켜를 만들어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잎사귀의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초록색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깔들이 드러나게 된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광합성 작용으로 축적된 나뭇잎의 성분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안토시아닌이 많은 단풍나무는 빨강, 크산토틸이 많은 은행나무는 노랑, 탄닌이 많은 상수리나무는 갈색으로 물든다고 한다.

나무들이 떨켜를 만들어 수분과 영양분을 차단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形形色색의 단풍이 만들어지는 원리로부터 기업도 배워야 한다. 기업의 경영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항상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때에는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 원가 절감을 하고, 제품의 차별화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고객 서비스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래 버틸 준비를 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屈己者は 能處重하고 好勝者は 必遇敵이라.

자기의 뜻을 굽혀서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위에 있게 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 <출처> 『明心寶鑑』 戒性篇